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 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사명자대회 오늘 발대식

### - 10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

2000사명자 대회가 오늘 발대식을 갖고 11월 26일(주일)까지 50일간 실시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과제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지향하는 서울교회의 부흥과 나아가 민족 교회와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에 이바지 하고 2020년까지 민족의 75%인 3,700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21세기 기독교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매년 교회설립 기념일전 50일동안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해 연속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전도하여 영광스러운 새 예배당 시대를 맞이하도록 한다.

특히 11월 13일(월)부터 25일(토)까지는 매일 오전 5시부터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이번 2000사명자 대회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주제와 믿음과 정성으로 주의 전을 건축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한 영혼 구원하자를 표어로 하며 ① 하나님의 전을 짓는 한 해가 되도록 한다. ②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③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를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또 주제성구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눅 5장 38절)

로 정하고 허락하신 새 땅에(찬송가 382장)를 주제 찬송으로 했다. 매일 기도시간에 성경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능력을 받고 전도할 수 있게 하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 하루 두번씩 드리는 기도와 50일 연속기도회로,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전 교인이 참여하게 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 드린다.

모든 성도들은 초청 태신자 명단과

중보기도 요청카드를 제출하여 기도실 입구에 비치하여 기도시 중보기도 하고 본 기간중 기도 응답이나 감동 받은 성도들은 기도실 입구에 비치된 기도 응답노트에 기도 응답내용 및 감동받은 내용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위한 각종행사가 진행되는데 연초에 작성한 태신자를 전도잔치에 초청하기, 1인 1명이상 초청 전도하기, 노방전도 실시등 나아가 각각의 처소에서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생활 전도를 실행한다. 교회 각 기관과 선교회, 교회학교도 자체 초청잔치 및 이삭줍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양 찾기에 힘쓰며, 각 교구 및 다락방에서도 배가운동을 펼친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7가지의 기도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첫째, 새 예배당 건축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시온성 작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둘째, 사명 받은 자들이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셋째,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넷째, 많은 양들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마다, 다락방마다 배가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

서 여섯째, 목회자 신학세미나, 성경대학, 김치 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일곱째,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울러 사명자 대회의 승리를 위하여 섬이없는 기도와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진행위원들에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에 전교인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요구된다. 3면에 계속▶

## 새성전 입당 D-78

단축된다는 의미는 암환자에게 치명적인 위기이다. 뼈를 깎는 아픔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축의 의미는 환희이고, 소망이고, 설레임이다. 하루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좋은 시간들 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놓여있다.

### 주요행사

- ▶ 특별새벽기도회
  - 11월 13일(월)~25일(토) 새벽 5시~6시
  - 강사: 이종윤 목사
- ▶ 50일 연속기도회
  - 10월 13일(월)~11월 25일(토) 주일 제외
  - 연속기도실: 2층 예배실
- ▶ 노방전도
  - 이웃·친지 전도: 대회기간 중
  - 병원전도(대학부, 청년부): 대회기간 중
  - 교구별 노방전도: 10월 22일(주일)
  - 전도회별 전도:
    - 10월 29일(주일)/빌립, 도르가, 안드레, 루디아

- 11월 5일(주일)/베드로, 베틀, 바울, 마리아, 아브라함
- 11월 12일(주일)/엘리아, 에스터, 모세, 한나, 사라
- 교회학교별 노방전도: 11월 19일(주일)
- 동산전도: 운동기간 중 매주 토요일
- ▶ 70일전도대 훈련
  - 대회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 태신자 운동
  - 태신자 선정: 10월 8일(주일)~29일(주일)
  - 태신자 초청잔치: 11월 19일(주일)
- ▶ 다락방 배가운동
  - 많은 양 찾기: 10월 8일(주일)~11월 25일(토)

- ▶ 군 복음화 전도
  - 군 입대자 선교: 10월 15일(주일)~11월 25일(수)
  - 군 입대 평신도 선교사 파송: 10월 15일(주일)~11월 26일(목)

### 10월 행사계획표

날 짜	행 사
10. 1	• 청년부 헌신예배
10. 2	• 목회자신학세미나(매주 월)
10. 8	• 사명자대회 시작 (11월 26일까지 50일간)
10. 18	• 학습·세례식
10. 20	• 교회학교 교사 연합기도회
10. 29	• 성경암송대회 예선
10. 29	• 새가족환영회

이시아강해

# 구원자의 출현

성경 : 이시아 41장 1 ~ 7절



이종운 목사

\*\*\*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들 곧 섬들, 민족들을 부르시어 여호와께로 '조용히 나아오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자,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힘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잠잠하라' 는 하던 말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는 것이며 '힘을 새롭게 하라' 는 것은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 예전의 힘을 버리고 새로운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석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는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 하라는 것은 특히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의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 1 여호와와 구원자임을 보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2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 여호와라' 고 하십니다(4절).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자기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이가 있으나 실은 파사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고레스는 이시아 이후 160년(BC546 - 529)이 지나서 일어난 왕이지만 이시아 선지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였습니다.

고레스를 대항하는 이들은 우상을 의뢰했습니다. 바벨론 왕 나부나이드는 고레스를 대항하기 위해 바벨론의 우상당을 수복하여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

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공의로 그를 불러' (2절). 의가 그를 심부름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 그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의를 위하여 고레스를 자기 발앞에 와서 수종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왕들을 그에게 넘겨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2절). 바벨론과 루디아 왕 가파도기아 왕들이 모두 파사 제국에 항복을 하고 그에게 복속 하였습니다. 열국이 고레스의 칼에 티끌 같이 되고 그의 화살을 받아 불러가는 초

개처럼 되었습니다(2절). 고레스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곳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지나 아시아 끝까지, 또 애굽까지 정복했습니다.

고레스를 처음에 일으키시고 끝까지 일을 매듭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4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세상을 창조를 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 2 백성들의 근심

고레스가 일어난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놀란 양떼처럼 발각 뒤집혔습니다. 목수와 세공장이와 매질꾼들이 '유익하고 강한 신들' 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설쳤습니다. 어떤 이는 우상에게 못질을 하고 또 다른 이는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레셋의 다른 신전이 무너지면서 신상의 목이 부러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상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못질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이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 방법과 생각과 미신에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이 마비되고 영원하고 영적 믿음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

는 신앙이 약해질 때 결국은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나부나이드 왕은 파사 제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당황하여 고레스를 대항하기 위해 우상전각을 수축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많은 나라들이 요동했고(5절) 열국이 협력하여 고레스를 막으려했습니다(6절). 이것은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고 집합주의와 공명주의가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고레스를 막는 방법으로 우상을 강화했습니다(7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우상주의에 열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므로 어두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들까지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권을 지배하실 뿐 아니라 물권을 가진 세상까지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인물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불신자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신자의 세력이 커도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므로 범사에 해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믿고 스스로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담대 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잠깐 동안 있는 거짓 위로입니다. 그들에게는 필경 괴로움이 더하여 지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여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 16:4).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속는 줄도 모르고 단결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의뢰하고 좇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 2000 사명자대회 공동기도제목

### 1. 교회를 위하여

- 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서울교회가 되도록
- ② 새 예배당 건축의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 ③ 사명받은 자들의 가슴에 전도와 기도의 열심을 갖는 기회가 되도록
- ④ 50일간 연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잘 타오르도록
- ⑤ 교회 각 기관마다 배가 되며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이 넘쳐나도록
- ⑥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신학 세미나를 위해
- ⑦ 태신자 초청 잔치를 위해
- ⑧ 당회원들과 모든 제직들의 영성을 위해

### 2. 나라를 위하여

- ① 민족적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 ②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 ③ 남북한 관계가 의와 질서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 ④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 ⑤ 가정과 사회에 성경적 윤리가 세워지도록
- ⑥ 군 복음화로 신앙 전력화 되고 온 나라가 복음화 되도록
- ⑦ 복음화된 통일 조국 위하여

### 3. 가정을 위하여

- ① 서울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 ② 병든 자와 시험에 빠진 자를 위해
- ③ 교회 각 기관의 회원들을 위해
- ④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 ⑤ 수험생들을 위해
- ⑥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 ⑦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 ⑧ 가정의 화평과 믿음을 위해



### ▼ 2000 사명자대회 금요기도회 주력교구 및 부서(21:30~22:30)

날자	교구	남선교회·여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10월 13일	(당회)	빌립, 도르가	새가족부·소망부	가브리엘
20일	1·2교구	안드레, 루디아	대학부·청년부	할렐루야
27일	3·4교구	베드로, 뵤뵤	사랑부·장년부	임마누엘
11월 3일	5·6교구	바울, 마리아	(권사회)	호산나
10일	7·8교구	엘리아, 에스더	탁아부·유치부·새가정부	시온
17일	9·10교구	모세, 한나	유년부·초등부	베들레헬
24일	11·12교구	아브라함, 사라	중등부·고등부	(스데반회)

### ▼ 70인 전도대 주력 부서

날자	교구	남선교회·여전도회
10월 14일	(당회)	모세, 한나
21일	1·2교구	아브라함, 사라
28일	3·4교구	빌립, 도르가
11월 4일	5·6교구	안드레, 루디아
11일	7·8교구	베드로, 뵤뵤
18일	9·10교구	바울, 마리아
25일	11·12교구	엘리아, 에스더

### ▼ 특별 새벽기도회 주관부서(11월 13일(화)~11월 25일(토))

명칭	특별새벽기도회	주간전도	명칭	특별새벽기도회	주간전도
날자·시간	매일 05:00~06:00	14:00~16:00	날자·시간	매일 05:00~06:00	14:00~16:00
11월 13일	1, 2교구, 가브리엘, 유년·초등부, 빌립, 진행분과	1교구	11월 20일	3, 4교구, 할렐루야, 소망부, 마리아, 진행분과	5, 6교구
14일	3, 4교구, 할렐루야, 중등부, 도르가, 홍보분과	2교구	21일	5, 6교구, 임마누엘, 새가족부, 새가정부, 엘리아, 홍보분과	7, 8교구
15일	5, 6교구, 임마누엘, 고등부, 안드레, 전도분과	수요일예배	22일	7, 8교구, 베들레헬, 유년·초등부, 에스더, 전도분과	수요일예배
16일	7, 8교구, 베들레헬, 대학부, 루디아, 기도분과	3교구	23일	9, 10교구, 호산나, 중등부, 모세, 기도분과	9, 10교구
17일	9, 10교구, 호산나, 청년부, 사랑부, 베드로, 교육분과	4교구	24일	11, 12교구, 시온, 고등부, 한나, 아브라함, 교육분과	11, 12교구
18일	11, 12교구, 시온, 유아·유치부, 뵤뵤, 안내분과	등산전도	25일	전교인 총동원, 연합찬양대	등산전도
19일	1, 2교구, 가브리엘, 장년부, 바울, 재정분과	주일예배			

\*



## 목사·장로 안식년제

### 첫 시행에 앞서 공동의회 안건으로 회부되다

1998년 8월 서울교회 당회가 제정하여 한국교회 백년사의 10대 뉴스에 포함되었던 목사·장로 안식년제가 첫 시행을 앞두고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회부되었다.

본 안식년 제도는 총회 헌법 규정상 70세 은퇴연령까지 시무하여야 할 위임 목사 또는 장로에게 안식년을 갖게 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주고자 함이다.

위임 목사는 6년 시무후 1년을 안식년으로 하되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고, 장로는 4년 시무후 1년을 안식년으로 하며 재 시무투표는 안

식년 종료 2개월전에 당회에서 시행하여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 시무하게 된다. 만일 2/3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물어 시무할 수 있다.

해당 목사·장로는 안식년 기간중 교회발전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을 위한 활동을 하며 필요시 교회의 자문에 응하고 비록 안식년 기간중 일지라도 성찬식에 성찬위원으로 참석하며 당회가 요청할 시 당회에도 참여하지만 결의권은 없다.

또 각자의 은사대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기타 봉사의 부서에서 섬길 수 있다. 교회 형편

상 장로 30명 전에 이를때까지는 기수별로 안식년을 시행하게 되며 2001년 첫 해당장로는 박철훈, 김광신, 오정수, 노문환 장로이다.

한편, 임광식, 이용선, 이남호 장로가 오는 12월 31일 은퇴하게 되며 헌법에 따라 한 교회에서 장로로 20년 이상 시무한 이들은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케 된다.

우리 교회는 설립된지 9년밖에 안되었지만 초대 장로들에 대하여는 교회 설립의 공을 인정하여 시무 년수와 상관없이 원로장로로 추대하도록 당회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임광식, 이용선장로 두분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도록 공동의회에 제안키로 했다.

임광식 장로는 1967년도에, 이용선 장로는 1973년도에 각각 장로로 안수를 받았고 우리 교회 설립회원으로 초대장로로 9년간 시무했다.



# 할렐루야 찬양대 야외기도회 다녀오다

김금준 집사(4교구)

할렐루야 찬양대가 2000. 10.3(화)에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성공적인 추수감사절찬양예배를 준비하면서 대원간 친목을 다짐하는 단합대회겸 야외기도회를 다녀왔다. 장소는 청량리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청 임업연구원(홍릉수목원), 이곳은 도심속에 자리잡은 작은 자연의 공간으로 바쁜 일상생활과 공해로 지든 도시인들의 휴식처로는 최상의 장소였다. 복잡한 경동시장을 지나 수목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곳은 이미 도심이 아니었다. 음~ 이 얼마만에 접해보는 솔내음인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특히 입구에 있는 산림과학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자료와 표본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착예배장으로 제공된 회의실은 벽면과 천정 등 전부 원목으로 제작되어 깨끗하며 은은히 풍겨나오는 솔향기는 정말 일품이었다. 우리는 교경선 목사님의 인도로 도착예배를 드리고 기도회 시간을 가졌는데 찬양할 때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게 들리는지 우리 새예배당의 입당을 더욱 고대하게 만들었다.

수목원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마친후 최명섭 박사님의 인솔하에 수목원 오솔길을 오손도손 걸으며 우리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 뽕나무의 명명, 대나무는 식물인가 나무인가 등등 식물과 나무들의 생태계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사실 오늘 이곳은 공개되는 날이 아니었다. 이곳 수목원은 주일에만 일반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내해주고 설명하고, 식사준비까지 해준 연구소 소속 직원 여러분께 너무 많은 사랑의 빛을 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소속직원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일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환경기꾸기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특히 2000년 추수감사절 찬양예배를 대원들간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해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겠고 이곳을 소개하고 방문도록 애써주신 신순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팔불출 소리 들어도 저희 다락방이 최고입니다



왕경희 권사(4교구)

저희 다락방은 반포 1동에 새로 생긴 다락방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새롭게 다락방을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김세재 집사님과 한 다락방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작년에 많은 부흥이 있었던 다락방을 이끈 집사님과 참석도 없던 다락방을 함께 해야 하더니 이젠 꼼짝없이 걸렸구나 생각 했습니다. 아난게 아니라 목요일마다 부다락방장으로서 대부분 이들도 생소한분들에게 연락을 하노라면 어김없이 확인 전화가 오고, 모임 날인 토요일은 왜 그리도 빨리 돌아오는 지 토요일 오후면 다락방장에서 교회앞에 차를 대기하고 기다린답니다.

올 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김희연 성도와 6개월 된 찬희, 홍의숙 성도와 7개월 된 수빈이가 오면 1차로 차는 출발하여 모임 장소인 다락방장택으로 향합니다. 어린 생명들로 인해 차안에서 부터 사랑의 교제는 시작되지요 도착하면 아운진 권사가 어찌나 반갑게 맞아 주는 지 도무지 다음모임을 빠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새 가족들도 귀에 쑥 들어오는 성경 말씀을 듣고 난 후 다락방식구들의 기도제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처럼

10명이 넘게 모이기로 하여 교구 목사님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단만 아쉽게도 새로운 한 가정어 토요일 상을 당하여 첫 출석이 좌절되고 항상 참석은 못해도 함께 기도하는 최원웅 성도 가정은 과일을 보내왔습니다. 아기들은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시간을 어찌나 조용히 잘 보내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느낀답니다.

이어서 가지는 저녁식탁은 저와 권사 면접 동기생인 이권사의 정성스런 건강 식단이 곁들여져 다락방 모임은 영과육의 작은 잔치가 된답니다.

수요일에 설교시간에 섬김을 잘 하는 성도를 말해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때 김집사님 내외분을 떠올림은 그분들의 다락방 식구 섬김이 아름다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언니로서 귀여운 두 아기의 지저귀기방을 듣고 다니며 아기 엄마들 식사 때 아기를 돌보기도 하는 작은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더우기 놀라운 변화는 두 애기 어머니의 첫번째 기도제목이 애기아빠의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하던 것에서 애기아빠의 영혼 구원과 세례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드리며 주 안에서 귀한 교제를 계속하도록 기도합니다. ☺☺☺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0일 송실대 개교 103주년 기념예배에서 설교한다.
- 12일 탈북난민보호 UN청원서명 900만 달성 감사예배를 갖는다.
- 권광영 집사(1교구)는 국립현대미술관 2001년 올해의 작가로 추천되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뉴욕(529W, 20St.)에 있는 KIM Foster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임상현 집사, 서희숙 집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바울- 9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2000 사명자대회 위하여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가정과 민족사회가 평안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 교외약도

